

도심속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전주시, 5개 구역 대상 미관 해치는 구도심 전선·통신선 정비

전주시는 도시 공중 미관을 해치던 전선·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을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체'와 협력해 '2022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7일 마쳤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도심속 공중케이블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민 또는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전주 하늘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구도심 5개소 지역은 '전주객사길 일원, 고숙 및 시외 버스터미널 일원, 서서학동 주민센터 일원, 팔복동 주민

센터 일원, 평화동 새터공원 일원' 등 전신주와 통신선이 많은 지역 대상으로 펼쳐졌다.

시는 사업에서 '방송·통신 인입선 정비, 과도하게 설치된 방송·통신선 비 통합, 폐선·사선 철거, 방송·통신선 정리'에 집중을 했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구도심 5개소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사업 평가에서 '상(上)'을 받아 획득한 8억 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비 4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 총 4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만5,460본의 전선(전신주 또는 통신주)과 케이블 901km를 정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는 교통 및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 경보기 등 설치·안전수칙 준수해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며 캠핑장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당부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구급 출동은 총 471건이며 월별 발생 현황을 들여다보면 1월이 98건(20.8%)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이 92

건(19.5%), 2월이 68건(14.4%)으로 본격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집중해 발생했다.

또 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가스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질식 사고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에 노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매년 겨울철이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안전사고는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완산구, 민·관 합동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지난 6일 삼천남초등학교를 찾아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완산구청,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

경감시단,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해 청소년 고민상담(1388) 홍보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날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

소 표시 여부등을 확인하고, 술·담배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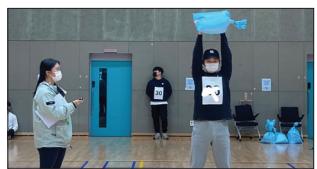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환경관리원 채용 3차 체력평가 실시

전주시는 7일 환경관리원 채용을 위한 3차 체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367명 접수), 2차 인적성 검사(362명 대상)를 통해 40명이 선발됐다. 이에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서 3차 체력평가를 실시해 채용인원의 2배수인 20명이 선발됐다.

평가 내용으로는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모래주머니 오래 들기, 모래주머니 옮기기 종목 등으로 구성됐다.



전주시는 이어 16일 4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선발된 10명을 28일에 발표하며, 2023년 1월 2일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화동 주민센터에 소원 나누는 '행복을 주는 소원나무' 설치

전주시 평화 1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귀덕)는 7일 평화동 주민센터 민원실 입구에 '행복을 주는 소원나무'를 설치했다. 이 행사는 주민들의 새해 소원을 메모지에 적어 나무에 달아 주는 것으로 진행됐다.

행복을 주는 소원나무는 내년 1월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희망과 바람을 메시지에 작성해 걸어둘 수 있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과 7일 전북경찰청에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태권도원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가정 대상 태권도원 무료 이용 지원

전북경찰청-태권도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과 7일 전북경찰청에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태권도원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 차안활동을 전개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

적 정착을 돕고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협약을 통해 결혼이주거주자에게 태권도를 소개하고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활동에 나선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태권도를 경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응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태권도 관련 지원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지방병무청,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재일)은 7일 2022년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수, 의사, 사회복지시설장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돼 병무 행정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제언과 병역제도 개선방안 토의로 마련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 2022년도 전북지방병무청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적극 행정 사례 등을 설명하고 병역관점검사 등 병역이행 과정 전반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됐다.

권재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정책자문 위원들은 정책현장 방문이나 정책 결정, 평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 행정을 펼치겠다"며, "정책자문 위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병역 의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전북지방병무청은 7일 2022년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